

유토피아 문학 『뒤를 돌아보며』에 제시된 평등 속 젠더 불평등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Gender Inequality in Equality Presented in Utopian Literature *Looking Backward: 2000-1887*

Da-Young Ryu
Liberal Arts Department,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유토피아 문학 속에 제시된 젠더 불평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벨라미가 제시한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은 생산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육아의 일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미 의 관념을 보여주는 등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 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 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 직 장 및 사회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회현상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젠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gender inequality in the Utopian literature through Bellamy's novel *Looking Backward: 2000-1887*. Boston, USA, in 2000 is an equal society in which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performed efficiently, and everyone can work with an equal opportunity without discrimination. But a closer look at the social structure shows that housework and parenting are predominantly women's duties, and the jobs that women and men can have are differentiating.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true gender equality has been achieved. In addition, we could see that there were still remnants of gender inequality, such as showing the notion of beauty judged by male standards. However, Bellamy's *Looking Backward: 2000-1887* is meaningful in that it improved women's statu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and hope of social development in the 19th century. This study further examined whether these gender inequality factors have disappeared in modern society and confirmed that there remain many gender inequality factors. Therefore, we should all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members of society and make changes in social policies so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etween women and men so that we can truly become a gender-equal society.

Keywords : Gender Inequality, Gender Equality, Utopian Literature, Edward Bellamy, Looking Backward

*Corresponding Author : Da-Young Ryu(Jungwon Univ.)

email: modestar99@jwu.ac.kr

Received August 12, 2020

Revised November 3,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중세 이후 유럽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공업인들이 새로운 경제적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상공업인들은 시민계급을 형성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켰으며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한 가지 문제는 성장하는 사회적 부의 불균등한 분배였다. 다시 말하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이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시작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문학에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타난 작품이 토마스 모어 경(Sir 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이다. 이 작품은 인간이 원하는 완전한 사회를 의미하는 ‘유토피아’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저서이자 유토피아 사상의 단초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1]. 사실 그 전에 플라톤도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국가가 그리스 시대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믿으며 고대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그는 아틀란티스가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의 표본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이 과거의 황금시대를 꿈꾸는 것에 비해, 토마스 모어는 현실에 공존하는 이상향을 묘사하였다. 그 이후에도 이상향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고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발전하게 된다.

자유주의(Liberalism)가 등장하였던 18세기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부의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시민 혁명의 이념적인 기본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Socialism)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는 이상주의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s)와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로 나뉠 수 있다. 이상적 사회주의에서는 공동체 생활과 생산 수단의 국유화, 그리고 개인의 사적 소유 금지 등이 기존의 자본주의와 대립을 이루었다[2]. 하지만 이상적 사회주의는 현실에서 실현되기에 너무나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 뒤에 등장한 과학적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 사상은 급진적으로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혁명 사상을 가지고 맹렬하게 사회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게 되었다[2]. 유토피아 소설은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이 추구

하는 이상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문학에 큰 역할을 한 여러 작가들 중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 1850-1898)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자본주의의 생산성 이면의 비이성적이면서 잔혹한 면을 민감하게 느끼며 이와 관련된 글을 썼다. 주로 환상소설을 쓰던 벨라미는 1888년 『뒤를 돌아보며』(*Looking Backward: 2000-1887*)를 통해 그의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펼쳐 나간다. 벨라미는 산업이 가지는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산업화를 통해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산업화가 완성된 2000년의 사회는 19세기의 산업체제에 대한 모순과 문제가 모두 해결된 사회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으며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가 그들의 이상향을 과거의 세계 또는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벨라미는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현실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그의 이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고,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유럽의 사회주의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벨라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와 계급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미국적인 토대를 가진 그들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길 원했다.

하지만 벨라미가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사회관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가 묘사한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에는 그 자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불평등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벨라미가 추구하는 평등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산업군이라는 노동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젠더적 측면으로 초점을 맞추어 젠더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손세호는 『뒤를 돌아보며』의 작품 속 2000년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남성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산업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등 지위가 높아졌음을 강조했으며[3], 민현숙은 벨라미 작품에 대해 서사연구를 하면서 19세기와 비교하여

21세기의 여성이 교육이나 노동면에서 환경이 향상되었음을 언급하였지만(4) 젠더 불평등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뒤를 돌아보며』에 제시되어 있는 젠더적 불평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젠더적 불평등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에 부당하고 불평등하다고 여겨진 여성의 위치가 작품 속 21세기 이상세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젠더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벨라미가 제시한 평등한 사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출판이 되면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이 소설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출판되며 미국 대학생들의 필독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벨라미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알아보기 위해 소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겠다.

보스턴 상류 계층의 줄리언 웨스트(Julian West)는 자신과 같은 계층의 이디스 바틀렛(Edith Bartlett)과 약혼을 한 젊은 청년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 자신의 신혼집 완공이 계속 미뤄지게 되자 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속한 계층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는 이러한 신경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을 겪게 되고 자신의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집 지하에 두꺼운 철판과 탄탄한 콘크리트로 밀폐된 비밀 침실을 만든다. 1887년 6월 30일 그는 한 최면술사의 도움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큰 불이 나게 되고, 지하 비밀 침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하인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한 구조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지하 침실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웨스트는 그렇게 지하에서 113년간 잠을 자게 되고, 잠이든 웨스트는 2000년 9월 10일 리트

박사(Dr. Leete)에 의해 발견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줄리언 웨스트는 리트 박사부부와 그의 딸 이디스 리트(Edith Leete)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보호를 받아 1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2000년의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웨스트는 리트 박사로부터 2000년의 세계가 자신이 살고 있던 1887년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다. 2000년의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 체제로 사람들의 생활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이상적인 세계였다. 이 사회에서 국가의 모든 자본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을 위해 운용되는 그야말로 생산의 국유화가 이루어진 세계이다. 또한 이 사회에는 화폐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만 존재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사람들은 거주하고 공동 세탁장, 공동 식당 등이 있어서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녔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감옥도 필요 없고 법률도 또한 필요가 없다. 빈곤이나 기아, 부패나 매춘 등이 사라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익숙해지려는 어느 날 웨스트는 다시 19세기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9세기로 돌아온 웨스트는 보스턴 시를 돌아보고 자신이 경험한 2000년의 보스턴과 비교하며 현실을 개탄한다. 그는 자신의 약혼자인 이디스 바틀렛의 집에 모인 상류층들에게 19세기 현재의 경제 체제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상류 인사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사회의 적이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그들에게서 내쫓긴 웨스트는 원망이 아닌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또 다시 꿈에서 깨어나 리트 박사의 침실에 앉아 있게 된다.

『뒤를 돌아보며』의 사회체제는 기본적으로 산업군에 입각한 것이다. 벨라미는 이러한 사회체제에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가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묘사하였다. 그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이러한 평화적인 국유화사상이 기본이 되었다. 그는 국가의 경제가 국유화되면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는 사람들이 추위, 굶주림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벨라미가 그의 작품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제시한 2000년의 평등한 사회와 19세기 사회를 정리하여 비교해보면 다음 표과 같다.

Table 1. A Comparison of Society in the 19th Century and Society in the 21st Century presented by Bellamy

Comparisons	19 th century	21 st century
Private Property	Possible	Impossible
Currency	Used	Nonexistent
Crime	Occurred	Not occurring
Women's Social Life	Impossible	Possible
Women's Political Rights	None	Existence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벨라미의 작품 속 21세기 사회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다. 정부는 모든 소득을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실업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회는 능력에 따른 생산이 가능하며,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여성들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남성과 차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 그들은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성 산업군에 소속되며 남성들과 똑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19세기 여성들이 주로 하던 요리와 세탁 등의 가사노동은 담당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신한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노동은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장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성의 평등은 차치하고 참정권 조차도 부여되지 않았던 19세기와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모두가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인 공동체에서 남의 집 하인이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적 평등이 있는 척도 하지 않던 우리 시대에도, 여성들이 하인 찾기가 무척 어려웠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간이고 그 평등은 무엇으로도 훼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서로 남을 위해 일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사회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라, 필요할 경우 예전보다 훨씬 쉽게 하인의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요.” 리트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인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의 등을 휘게 하던 짐을 이제는 국가의 넓은 어깨가 킁킁 가볍게 지고 있지요.”[5]

19세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경쟁으로 인해 중소 자본가들이 몰락하게 되고 자본이 대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해졌던 시기이다. 이러한 경쟁이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본이 국가라는 큰 사업체 아래 모이면서 끝나게 되었다. 국가 아래 모든 자본이 몰리고 이러한 자본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고용자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평등이 실현된다. 벨라미는 이러한 산업화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모든 산업과 상업이 국가의 통제와 관리 아래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자본이 국가에 모여서 관리되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산업국유화’를 표현했으며, 모든 개인의 소유를 없애고 국민들이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

벨라미가 그리는 2000년의 보스턴은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며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도 사라진 사회이다. 모두가 국가라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꺼려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되었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재화가 넉넉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져 행복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2.2 평등 속 숨겨진 젠더 불평등

웨스트는 리트박사의 2000년 사회의 설명을 듣고, 19세기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알게 된다. 리트박사는 19세기에 해결되지 못한 여성문제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19세기에는 여성들이 교육, 직업, 문화적인 면에서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웨스트는 2000년의 여성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 일할 수 있는 것에 놀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독립적이고 건강한 모습에 19세기의 여성과 많은 차이를 실감한다. 2000년의 여성들이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게 된 이유에는 그들이 집안일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웨스트는 과거의 여성들이 무능력했었던 원인이 남성에게 경제권을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2000년을 사는 여성들은 더 이상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으며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미래의 열쇠가 맡겨진 세상의 파수꾼과 같은 존재로 높은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리트 박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군의 일원으로 일한다고 말한다.

“현대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군의 구성원이고, 아이를 돌보는 일 때문에만 군대를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대부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5년, 10년, 15년 정도 산업 복무를 하고, 아이가 없는 여성들은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웁니다.”[5]

산업군의 일원으로 남성과 똑같이 여성도 노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성을 독립적인 주체로 만드는 데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육아의 의무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산업군을 떠난다고 리트 박사는 말한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 바깥으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바라는 것 또한 19세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집안일에 모든 노력을 쏟거나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뒷바라지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9세기 여성들보다 훨씬 자유로워졌고, 결혼이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웨스트는 21세기의 여성들은 19세기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산업군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역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리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자들만큼 여성들의 노동도 이끌어 냅니다. 그래도 이 시대 여성들은 아주 행복한데, 현대 참고문헌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19세기 여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반면 오늘날 여자들이 남자들의 동료 노동자로서 제 몫을 다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성은 물론 여성의 노동에서도 모두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병약해 보이던 과거 여성들과 달리 현대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아주 훌륭한 이유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강과 기운을 북돋는 직업을 얻는 덕택이구요.”[5]

리트박사는 여성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주도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야망과 출세를 보장받아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19세기에는 여성들이 가장 큰 희생자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2020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리트박사의 이러한 발언을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또한 19세기 사고관에

입각하여 여성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을 살고 있는 여성들은 번거로운 가사일에서 해방되어 남성과 마찬가지로 산업군에 투입되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산업군에 투입되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과 전혀 다른 위치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평등함을 강조하는 21세기 사회에서조차 여성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원하는 직업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best adapted to)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 또한 여성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이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여성이 독립된 주체로서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이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한다는 리트 박사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해 리트 박사는 19세기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정상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여성들이 무척 행복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남성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를 두는 것 역시 젠더 불평등에 입각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리트 박사는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질을 유지해야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19세기의 가부장제적인 사회와 다르지 않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육아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산업군 복무기간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여성에 대한 상당한 배려는 하는 것처럼 포장하긴 했지만 이는 21세기의 여성 또한 기본적으로 양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1세기의 사회에서도 양육의 문제를 여성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근대적 젠더 체제의 여성역압성은 여성은 아이를 낳는 몸을 가졌으므로 아이를 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전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공적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이 아이를 기르는 삶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조직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말한다[6]. 따라서 여성이 산업군에서 복무하는 노동의 문제 또한 자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를 배려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부정적인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또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성을 나약하고 여린 존재로 여기고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여성이 육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육아의 의무가 남녀 공동에게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작가 벨라미는 여성들이 잘 보살피고 전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회환경을 꿈꾸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체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는 조직 안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트 박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성들과 부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들을 위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여성에게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경쟁과 야망, 그리고 직업을 주었고, 장담하건대 그 안에서 여성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웨스트 씨 시대의 문명에서 여성들은 어떤 계급의 남자보다 더 가련한 희생자였습니다.”[5]

여성들에게 그들만의 체제에서 통치권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새롭고 획기적인 생각이고 그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완전한 남녀평등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벨라미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가사일이 남녀 공동의 일로 인식되고, 남성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치부되어 왔던 분야에 여성들이 취업하게 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제도나 가치관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벨라미의 작품에서 제시된 2000년의 사회 속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젠더 불평등은 그가 작품을 썼던 19세기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2. Gender Inequality of Women in 19th Century Society and 21st Century Society

Comparisons	Women in 19 th century society	Women in 21 st century society
Career	Difficulty in getting a job	Job selection restricted
Parenting Duty	Women's duty	Women's duty
Housekeeping Work	Women's duty	Women's duty
Image	Weaker than men	Weaker than men
Beauty	External image emphasis	External image emphasis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벨라미가 그의 작품 속에서 예측한 2000년의 보스턴은 평등한 사회로 그려지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업을 가지는데 제한이 있으며 육아와 가사일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또한 남성보다 약한 이미지로서 외적인 부분에서 아름다움이 평가되고 있는 등 젠더 불평등한 상황이 여전하다. 작가 벨라미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평등해지면 사회의 나머지 모든 제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19세기에 가지고 있던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자체가 남성적 가치가 지배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2000년에는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당시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여성인 리트박사의 부인과 그의 딸 이디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들이 더 할 말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이 소설 어디에도 리트 박사의 부인이나 그의 딸 이디스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 이들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디스는 19세기의 여성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는 그녀의 외적인 부분만을 표현하며 드러나는 내용이고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리트 부인은 남편과 비슷한 나이에 아주 단정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이제 갓 여인이 된 딸은 내가 본 어느 아가씨보다 아름다웠다. 깊고 푸른 눈, 밝고 그레한 얼굴, 완벽한 이목구비를 지닌 그녀는 정말 매혹

적이었는데, 얼굴이 그토록 매력적이지 않았다 해도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 아름다운 몸매만으로도 19세기 여성들 사이에서도 미인 자리를 꿰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랑스러운 존재는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우아함은 물론이고,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없었던 건강미와 신체적 활력까지 지니고 있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기묘한 상황에 비하면 별 것 아닌 우연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이 하필 이디스라는 점도 인상에 남았다.[5]

이디스는 19세기 여성들이 가지지 못한 건강함과 생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외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의 남성들이 여성을 판단하는 '미'의 관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선과 악, 미와 추 등의 이분법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7]. 그러므로 여전히 젠더 불평등한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현대 사회의 젠더 불평등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2020년의 우리 사회에도 많은 반향을 일으킨다. 벨라미가 상상했던 유토피아는 비록 2000년의 미국의 보스턴이지만 그가 예측했던 여성에 대한 평등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이 개선되었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여성들의 고용이 확장되는 등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젠더 불평등 요소가 해소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과 직장, 사회의 영역에서 젠더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 44.5%가 맞벌이를 하지만[8], 집안에서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평균 3시간 28분인 반면 남성이 평균 1시간 19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직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화와 저임금, 경력단절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등 젠더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상당부분의 여성은 비정규직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같은 직종의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등 임금 불평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하여 한술은 모성 벌점(motherhood penalty)와 부성 보너스(fatherhood bonus)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여

성 노동자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암묵적인 차별에 근거해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모성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보았고, 반대로 가정에 아이가 있는 아버지는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임금이 더욱 높아지는 이득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모성벌점과 부성 서비스는 가족 돌봄에 대한 젠더적 편견이 일차에서 극적으로 나타난 예시라고 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출산, 자녀 양육에 연관시키고, 남성은 일차적 생계부양자 개념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별이라고 보았다[10].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를 여성들의 이기적인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의 모성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전망,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의 저조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젠더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1].

여성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젠더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계발이라는 담론으로 포장해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하며, 아름다운 외모는 '착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11]. 몸매를 관리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외적 이미지는 게임 캐릭터로 재현되는데[12], 남성적 가치로 인식되었던 공격성, 전투성, 그리고 총기류를 능란하게 다루는 기술 등을 보유하며 빼어나게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가는 허리, 날씬한 팔다리까지 현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기형적으로 성적 매력을 강조한 몸매를 만들어 내고 있다[13]. 이와 같이 성 상품화된 여성의 이미지는 성불평등을 야기시키고 가부장적인 문화권력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14]. 이에 따라 여성의 정형화된 몸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몸을 억압하고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삶의 기회를 제한해 온 이러한 성별화된 몸과 외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안티미스코리아대회'에서부터 '여성환경연대와 '볼꽃 페미액션' 등이 개최한 여성의 몸 이미지 다양성 보장을 위한 캠페인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15].

2017년 한국여성민후회가 1,25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참여자의 93%가 한국은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국가'라고 응답했다고 한다[16].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외모에 대한 지적과 같은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취업 여성

들은 임금 차별, 업무평가, 성희롱,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김은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차별에 더하여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 즉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 악의도 없지만 당하는 피해자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포함한 차별을 의미한다[16]. 이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습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 명확하게 차별을 의식하는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젠더 불평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우선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젠더 불평등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추상적인 문제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에 속한다. 물론 차별과 불평등의 기준은 시대의 관행에 따라 다를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 수준에 따라 바뀔 것이다. 하지만 젠더와 연관된 사회정책을 검토할 때 정책적 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17]. 따라서 젠더 평등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정책적인 수단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벨라미는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을 배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그가 제시한 사회는 생산과 분배가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평화적인 국유화가 완성된 곳이다. 모든 소득은 공평하게 분배가 되며, 실업이 사라진 사회이다. 여성들은 가사일에서 해방되고, 남성과 똑같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인 것이다. 그가 예측한 내용 중 많은 부분들이 실제 현대 사회에 많이 실현되었으며,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다.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복지, 임금 상승, 교육 기회 확대 등 현대 사회는 19세기 사회보다 훨씬 발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소설 속 남

성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많은 불평등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며』에서 제시한 2000년 사회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잔재해 있었는데, 우선 가사일에서 해방되어 남성과 마찬가지로 산업군에 투입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닌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에 투입되어 여성들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을 달리한다는 것은 젠더 불평등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육아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복무 기간을 면제해주는 등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사회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양육의 의무를 여성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젠더 불평등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19세기 여성과 비교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등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미의 관념을 보여주었으며 이 또한 젠더불평등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풍요로우며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들은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현대 사회의 여성들도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성차별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여성들의 고용이 확장되는 등 벨라미가 예측했던 많은 요소들이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에 여성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직장에서도 남성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젠더 불평등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여성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글래머러스하고 날씬한 여성의 몸매는 '착한 몸매'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게임 안에서의 여성캐릭터는 기형적으로 성적매력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성 상품화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젠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 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미묘하며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의 젠더 불평등 요소도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 생활적으로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며 어느 한 성이 다른 성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관념을 실현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형성하게 될 때 이러한 구분은 '차별'로 바뀌게 되고, 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차별적 행동, 차별적 제도와 정책을 이끄는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성차별주의', 즉 '젠더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18]. 미첼(Juliet Mitchell)이 지적했듯이, 여자들에 대한 태도는 여성 심리와 남성 심리가 남근적 상징에 의해 지배되는 한 결코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진정으로 인간화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타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19]. 따라서 진정한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 Y. Lee, "Thomas More: A Political Thinker Beyond the 16th Century". *Humanities Studies East and West*, Vol.0, No.46-, pp. 225-249, 2012.

[2] E. T. Park, *A Dictionary of Economics*, Genyunsu, 2010, p.847.

[3] S. H. Son, "Looking Back on Edward Bellamy's Looking Backward, 2000-1887", *Korean Society of American History*, Vol.27, No.-, pp.1-36, 2008.

[4] H. S. Min, *A Narrative Analysis of Looking Backward: 2000-1887*,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5-17, 2001.

[5] Edward Bellamy, translated by H. J. Kim, *Looking Backward: 2000-1887*, Agorabook, 2014, pp. 5-316. DOI: <https://doi.org/10.4159/harvard.9780674866157>

[6] J. G. Lee, C. I. Yoo, S. E. Na, *National Development and Gender Politics: Family, Labor, and Sexuality*, Arche, 2016, p. 208.

[7] D. Y. Ryu,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of Women in Disney Animation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2, pp.380-389,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20.12.380>

[8] Statistics Korea,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Survey", National Statistical Portal, 2020.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accessed Aug. 7, 2020)

[9] Statistics Korea, "Results of 2019 Living Time Survey", Department of Social Statistics Planning, 20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161 (accessed Aug. 7, 2020)

[10] S. Han, "Gender Inequality in Work-Family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Doing Gend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4, 2018. DOI: <http://doi.org/10.22143/HSS21.9.4.39>

[11] N. Y. Lee, "Multi-layered Gender Inequalities in Korean Society: 'Myth' of Equality and Women's Positionality in Flux",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Vol.30, No.4, pp.1-45, 2014.

[12] H. W. Cho, "Globalization and gender inequality in light of Feminism",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14 No.2, pp.1-20, 2007. DOI: <http://doi.org/10.18107/japs.2007.14.2.001>

[13] S. J. Lee, "Symptomical Reading on the Global Cultural Industry and the Dynamics of Gender", *Economy and Society*, Vol.-, No.70, pp.38-62, 2006.

[14] S. S. Noh, "Globalization and the Critical Rol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Women's Daily Lives", *A Collection of Women's Studies*, Vol.18, No.-, pp.3-26, 2001.

[15] D. S. Kim, Y. T. Kim, C. Y. Tong, D. E. Jung, S. Y. Kim, *Gender and Health Inequality in Korea: Focusing on Body Obsession and Aesthetic Plastic Surgery*, Hanhakmunhwa, 2019.

[16] E.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4, No.4, pp.593-614, 2018. DOI: <http://doi.org/10.20406/kics.2018.11.24.4.593>

[17] J. M. Hwang, "The problem of sex discrimination and women's policy in Korea", *Issues in Feminism*, Vol.4, No.1, p.195-233, 2004.

[18] Y. H. Jo, "An Anthropological Study of the Origin of Sexism and Its Historical Unfolding".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32 No.-, pp.131-168, 1993.

[19] Rosemarie Tong, translated by S. Y. Lee, J. H. Chung,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HS Media, 2010, p.177. DOI: <http://doi.org/10.4324/9781315003221>

류 다 영(Da-Young Ryu)

[중신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 대학교 교육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영미소설,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문학과 치유, 문학과 젠더